

부모화된(parentified) 20대 미혼여성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 미 정*

박 승 민

숭실대학교

부모화(parentification)는 자녀가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역할반전(role reversal)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 개인의 가족관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1994)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는 20대 미혼여성 7명으로, 부모화 척도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선정 되었다.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원자료 분석을 통해, 5개의 대주제와 2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자료분석 결과,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의 경험 속에는 부모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 같다고 느낄 정도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존재감이 내포되어 있었다. 동시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 또한 공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가적 심리상태를 오랫동안 가진 채 살아온 참여자들의 경험은 ‘울타리 없는 삶’ ‘나로서 살지 못함’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견뎌온 삶의 회한’, ‘친함과 편함 없는 만남’이라는 하위 주제들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학술적, 상담실제적 함의를 부모화된 자녀의 발달적 특징, 심리적 갈등 및 관계 역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화, 부모화된 20대 미혼여성의 삶,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

* 이 논문은 석미정(2017)의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요약,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석미정,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 010-7278-2825, E-mail : vology@hanmail.net

‘부모화(parentification)’는 가족체계 안에서 부모역할을 하도록 기대를 받는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 중 하나로, 가족 체계 내 역할 불균형과 관련이 깊으며(Boszormenyi-Nazy, & Spark, 2013), ‘성인화(adultification)’라고 언급되기도 하는 심리적 현상이다(Barnett & Parker, 1998).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자녀가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역할반전(role reversal)이 나타나게 되는데(Jeremy, 2007), 부모화 역시 그런 역할반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반전은 친밀한 교류의 결핍, 애착문제, 자아분화 지연 등의 어려움을 초래한다(Chase, 1999; Jurkovic, 1997; Robinson, 1999). Bowlby (2014)는 개인의 성격구조, 가족 및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각 연령대의 발달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발달과업의 지연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자기 충족적 삶을 보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안정적으로 부모와의 애착 형성 및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해 애착과 돌봄의 제공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화 현상은 여러 사회적 장면에서 대인관계를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이에 한 개인의 적응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족 측면의 중요한 요소로서 부모화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부모화의 이론적 토대는 Boszormenyi-Nazy에 의해 정립된 맥락적 치료이론(contextual therapy)이다(Jurkovic, 1997). 여기에서는 가족체계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책임감의 균형에 비중을 두면서 다루고 있다. 맥락(context)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실존적, 심리적, 존재론적 영역을 의미하는데(Boszormenyi-Nazy & Krasner, 2014, p9-10), 상호작용 양상이 실존적 질서와 윤리적 맥락에서 벗어날 때 병리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테면 자녀가 부모역할을 대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과 같은 극심한 상실로 인한 역할의 진공상태(role vacuum)를 막는 것도 일례이다(Chase, 1999, p8). 가족체계이론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침범당할 때 자녀가 부모를 과도하게 돌보는 부모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Minuchin, 1988). 애착이론에서는 부모화를 일종의 역기능적 양육방식 중 하나이며 역전된 부모-자녀관계로 보고 있다(Bowlby, 2014). 따라서 자녀들이 보이는 강박적 돌봄(compulsive care-giving)은 불안정한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행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Hooper, 2007).

부모화의 하위유형에는 정서적 부모화(emotional parentification), 도구적 부모화(instrumental parentification), 불공평(unfairness)이 있다. 정서적 부모화는 부모의 고통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입하고 위로와 조언 등의 정서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구적 부모화는 가족 돌보기 등 실제적인 과제(task)나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불공평은 가족구성원 간 돌봄과 도움의 주고받음에 있어서 공평성의 정도를 의미한다(Jurkovic, 1997, p8). 과도한 책임을 떠맡으면서 경계침범과 정체성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파괴적 부모화(destructive parentification)로 볼 수 있는데, 파괴적 부모화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나 재정과 고용, 생활 만족도, 친밀한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evine, 2009).

1950-60년대에 조현병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연구에서 가족을 하나의 변수로 측정된 것이 부모화 연구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Chase, 1999, p14).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신주연(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와 부모화 특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부모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병리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초기 연구는 주로 부모화의 부정적, 역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어린 시절 부모화 경험은 성인기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Giles, 2014), 부모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책임감에 집착하고 욕구를 억압하면서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영, 2004). 또한 부모화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자기비난, 과도한 염려와 소외감, 신체화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명선, 강지희, 2008; 강원희 외, 2010; Byng-Hall, 2002; Byng-Hall, 2008). 이들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Chase, 1999), 수치심과 불안이 많고(이기학, 신주연, 2003; 함광성, 신태섭, 2015), 낮은 진로결정수준을 보였다(조이정, 2015). 대인관계에서도 부적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강원희 외, 2010; 문 비, 2006;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부모화된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경험한 위계를 침범하는 관계방식으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를 또래관계로 유도하면서 건강한 교사-학생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be-Stroman, 2015). 이처럼 부모화의 부정적 특징들을 보고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화 경험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과 취약한 부모역할, 성인기까지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외상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Hooper, 2007).

한편, 부모화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적응과 연결되는 부모화의 기능적 측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 부모화가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관계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리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Boszormenyi-Nazy, & Spark, 2013: 151). 예컨대, 부모화의 하위 유형 중 정서적 부모화와 도구적 부모화는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강선모, 2015; Jurkovic & Casey, 2000), 학업성취와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강선모, 2012; 문정덕, 2006; 전해경, 2006; Boszormenyi-Nagy & Spark, 2013), 책임감, 자신감, 회복탄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Barnett & Parker, 1998)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인, 2014). 부모화의 병리성 이면에 있는 회복력에 대해 밝힌 연구들(Hooper, Marotta, & Lanthier, 2008; Nuttall, 2015)에 의하면, 양육자의 부재라는 외상적 경험을 통해 그 이면의 긍정적 동기나 유능감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것을 ‘외상 후의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한다. 부모화 경향이 지나치게 낮아도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 내재화나 외현화 문제, 부모-자녀 관계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McMahon & Luthar, 2007). 따라서 부모화 현상이 나타내는 양면성, 즉 병리성과 적응적 특성이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 가족의 기능은 축소되고 개인 중심으로 생활방식과 삶의 형태가 변화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기의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의 요소이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곽금주, 2010). 청년기는 정체성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서 이성문제, 진로문제 등 당면과제들의 출현으로 인해 실험적 시도들이 빈번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는 심리적 변화와 함께 분리-독립을 갈망하는 마음과 이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혼란까지 겪게 된다(정옥분, 2015). 다양하고 새로운 실험적 시도들은 기존의 가치기준과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분리-독립이 발달적 측면에서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박아청, 2010).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모화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할 불균형이나 역할 반전과 관련이 깊으며, 주로 자녀가 부모역할을 하는 병리적 양상으로 드러난다(Boszormenyi-Nazy & Spark, 2013). 20대 여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특징 역시 청년기의 개인들이 나타내는 보편적 특징들과 유사하지만, 부모화된 여성 청년들의 경우 성역할 기대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에, 주변의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Jurkovic, 1997: p51). 이러한 역할반전은 이성교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방의 욕구에만 집중하게 하며 낮은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Fulliwider-Bush & Jacobvitz, 1993). 그 결과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방식을 보이게 된다. 자신의 욕구는 배제하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함으로써 정서적 소진에 이르기 쉬우며(김보람, 최수미, 2016), 감정과 욕구 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과

억제는 이성관계 만족도를 감소시킨다(윤수지, 2014). 이는 부모화된 여성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역할경계의 침범을 쉽게 당하고, 심리사회적 부적응 및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정체성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화된 자녀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부모화 현상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닿아 있고, 여성의 행동양식, 삶의 목표, 성격특징 등이 타인에 대한 책임감, 돌봄, 상호의존성과 연결되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형성되는 경향(Jurkovic, 1997)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여성의 부모화 현상에 대해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모화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나(강원희 외, 2010; 조은영, 2004),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성보다 쉽게 역할반전을 경험하면서 부모화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away, 1992; Maysless, Bartholomew, Henderson, & Trinke, 2004; 문 비, 2006; 이기학, 신주연, 2003)을 보고하고 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부모화 현상은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Jurkovic, 1997). 예컨대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모화 성향이 강할 경우(unilateral parentification), 한 사람은 부모역할을 하고(parentlike functioning) 나머지 한 사람은 자녀 역할을 한다(childlike functioning).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부모화 성향이 강할 경우(bilateral parentification),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주려고 하는 경쟁적 구도에 놓이면서 부모 대 부모로서

의 동반자적 관계(parent-parent partnerships)가 형성된다. 두 가지 형태 모두 갈등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며 친밀한 교류경험이 차단된다. 원가족 내에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기대가 여성 자녀의 부모화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러한 양상은 결혼 이후에 배우자 및 새로이 형성하는 가족관계 안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가족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각 개인의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측면과 가족관계 안에서 전통적 역할기대(자녀로서의 역할 또는 돌봄 제공자로서의 딸 역할)를 바탕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맥락에서, 미혼 여성 자녀의 부모화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학술적, 상담실제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화된 여성’ 특히 ‘부모화된 20대 미혼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부모화 과정을 경험한 채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미혼 여성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원가족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여러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다변화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화된 미혼여성들의 삶의 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생활세계(lifeworld)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중심이 된 자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

다. 즉 이 경험 속 이야기들의 흐름을 귀납적으로 따라가면서 미혼여성들이 ‘부모화’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지와 그 체험한 내용들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와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인 ‘부모화’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삶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탐구하는데 초점을 둔 van Manen(1994)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부모화라는 주제를 상담의 핵심 주제로 삼아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체험한 가족관계와 그 속에서 형성된 자기개념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부모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에서 드러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방 법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경험에 대해서 상황과 맥락의 토대 위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참여자

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두는 방식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질적 연구방법론이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8). 특히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참여자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체험의 세계로서의 생활세계(life world)에서 출발한다(van Manen, 1994). 본 연구의 초점은 참여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의미로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으므로, 참여자들이 ‘몸소 겪어내고 있는 삶’의 생생한 체험 속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생활세계 속의 체험을 지향하면서 사물들이 드러나는 방식과 그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van Manen, 1994)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하나의 현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체험의 특징을 구성하는 주제들에 대해 끊임 없이 반성하는(retrospective reflection) 자세를 강조한다. 여타 현상학적 방법론을 말하는 학자들과 구별되는 van Manen의 방법론의 특징들(정상원, 2018)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미를 드러내는 일화(anecdote)의 강조이다. van Manen(2014)은 일화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잘 편집된 일화는 공간과 시간 측면에서 그 경험을 마치 현재처럼 함께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단, 여기에서의 일화는 그저 참여자가 말한 사실을 그대로 단순하게 옮겨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경험을 재창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일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체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텍스트를 통해 밝히는 것을 강조한다.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은 인간이 체험하는 바의 기본구조를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체험은 본질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서는 이 본질을 텍스트적 표현으로 전환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van Manen, 2014). van Manen이 강조하는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탐구 대상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체험은 경험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체험’은 ‘바로 그 순간(the moment of now)’의 경험을 의미한다(van Manen, Higgins, & van der Riet, 2016; 정상원, 2018 재인용). 따라서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의 탐구대상으로서 체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는 체험의 그 순간에는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것이며, 오로지 체험의 순간이 지난 이후 회상과 반성적 활동을 통해 다가갈 수 있다(van Manen, 1994).

셋째,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서는 분석에 있어서 해석의 역할을 강조한다. Husserl 학파에서 선이해에 대한 엄밀한 판단중지(epoché)와 있는 그대로의 기술을 강조하는 입장과는 달리,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서는 Heidegger학파의 관점에 따라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본질에 다가서는 것에 초점을 둔다(이남인, 2004). 그리고 체험의 본질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상징의 글쓰기를 통해 해석된 의미를 표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van Manen, 1994). van Manen은 체험과 그 체험의 의미를 기술하고 해석하기 위한 반성의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는 4가지 생활세계 주제들, 즉 ‘실존체(existentials)’를 이야기하였다. 이 4가지 실존체는 체험적 관계, 체험적 시간, 체험적 공간,

체험적 신체로서, 이는 모든 인간 존재가 세계를 경험하는 실존적 근거이며, 인간의 생활 세계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길잡이가 된다(van Manen, 1994).

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주제인 ‘부모화’를 전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모화 성향 특징들을 참여자들이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 설문조사,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참여자 선정 과정을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조은영(2004)이 번안한 성인 대상 부모화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를 20대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 FRS-A에는 가족 내 윤리적,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문항(예: 때로는 부모님보다 내가 더 책임감이 있는 듯하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 개념화하거나 미리 규정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종 참여자 선정과정에서는 정서적 부모화와 도구적 부모화에 대해서 차원 없이 단일하게 구성한 부모화 질문지(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PQ)를 사용하였다. PQ는 총 42개 문항(예: 어렸을 때 나는 우리 가족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점수가 42점인데 점수가 높고 최고점수에 가까울수록 부모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Jurkovic, 1997). Jurkovic 등(2001)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고집단

과 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조은영(2004)과 최경숙(2012)은 부모화의 정도에 따라 고, 중, 저 집단으로 구분하면서 상위 30%($M=27.84$)를 고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들의 부모화 준거점수를 토대로 하면서, 부모화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내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대상자의 PQ점수 30점 이상을 기준으로 1차 참여자들을 선정한 후 이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3명을 최종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예비조사 과정에서 연구 참여의사를 밝혔고 PQ 점수 30점 이상인 2명과, 의도적 표본추출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모집된 참여자들 중 PQ 실시절차를 거쳐 선정된 2명이 포함되면서 최종 참여자는 모두 7명으로 결정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3명이고 20대 후반이 4명이며, 형제서열로는 장녀로서 첫째인 참여자가 5명이고 둘째이면서 막내인 참여자가 2명이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체험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reswell, 2010). 이런 맥락에서 참여자들의 성별이나 나이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학력과 직업 및 종교를 명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선정되었음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윤리적 고려사항에 민감해져야 한다(Creswell, 2010).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선발용 척도를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한 박승민(2005)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참여자 선발을 위한 척도를 1차(예비조사)와 2차(설문조사)에 걸쳐서 사용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연구취지와 연구과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자 소개, 연구목적과 방법, 참여의사 철회에 대한 권리,

표 1. 참여자 정보

	성별	나이	형제서열	학력	직업	종교
참여자1	여	26세	1남 2녀 중 첫째	대학졸업	취업준비	무
참여자2	여	28세	3녀 중 첫째	대학원졸업	연구원	가톨릭
참여자3	여	22세	2녀 중 둘째	대학재학	대학생	무
참여자4	여	20세	1남 1녀 중 첫째	대학재학	대학생	무
참여자5	여	22세	1남 1녀 중 둘째	대학재학	대학생	무
참여자6	여	28세	1남 2녀 중 첫째	대학졸업	취업준비	기독교
참여자7	여	26세	1남 3녀 중 첫째	대학원재학	대학원생	기독교

면담내용 녹음, 개인정보 보호, 자료폐기 등에 대한 내용을 참여자에게 알려주면서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담은 두 차례에 걸쳐서 4시간 내외로 실시되었다. 현상학에서는 생활세계에서 마주치는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그대로의 경험을 지향한다(van Manen, 1994). 이에 참여자들이 허용하는 상황에 따라 자료수집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생생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면담 외에 참여관찰을 통해, 일종의 비구조화된 면담형식(서덕희, 2014)으로 참여자의 일상을 동행하면서 체험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은 여기에 대해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 1, 3, 5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반영하여 참여자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되는 주제와 장소를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동선을 방해하거나 주도하지 않으면서 함께 참여하고 관찰하였으며, 참여자가 선택의 곤란을 호소할 경우에는 몇 가지 선택사항을 추천해주고 참여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선호를 우선시하고 민첩하게 챙기는 모습과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고충을 표현하거나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면담과정에서 재경험되는 부모화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 또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차원에서, 면담 후 별도의 나눔 시간을 통해 다루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된 자료 파일은 연구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암호화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member check)을 거치면서 참여자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이나 표현을 확인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후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층면담, 일상의 동행 체험, 이메일, 전화통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이다. 예비면담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뷰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예비면

담용 질문지는 선행연구와 현상학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세미나에서 예비면담 결과를 검토하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세미나 중에서 심층인터뷰를 실습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 박사 1인과 교수1인에게 문항에 대해 재검토를 받았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느슨하게 구조화된 형태로 심층성을 지향하는(서덕희, 2014)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로 시작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추상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배경과 맥락,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들의 삶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탐색하였다. 예를 들어, “그럴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신은 주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가족 내 역할과 가족들의 반응,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 상호작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촉진시켜 나갔다. 또한 일상의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차 면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떠오르거나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청년기 경험세계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구체화해야 할 사항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참여자의 경험에 집중하려고 하였다. 참여자들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면담질문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1차 자료는 면담과정 녹음과

일을 전사한 258 페이지 분량의 축어록이다. 2차 자료에는 참여자가 수락한 일상의 동행체험 녹음파일과 현장노트 및 추가질문 관련 전화통화 녹음자료, 이메일이 포함된다. 이것은 축어록으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분석과정과 글쓰기 과정에서 사실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자료로 참고하였다. 우선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원자료와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화’를 하나의 현상으로 지향하면서 반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체험의 구조와 현상의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해 나갔다.

원자료에 대한 분석의 첫 단계로 van Manen (1994)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의 틀로 유지하면서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절차(Spradley, 2006)를 거쳤다. 이 절차는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의 체계를 잡는데 적합하며 참여자의 내면을 향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신경림 외, 2008). 그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표현한 경험의 의미를 van Manen(1994)이 제안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한 과정에서 발견된 참여자들의 일상적 언어에 집중하고 생활세계의 다양한 체험의 예를 제시하면서 경험의 의미를 풀어나갔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층적인 질문과 검토과정을 반복하면서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에 입각하여(Denzin & Lincoln, 2000) 면담자료, 연구노트, 메모, 현장일지, 참여자와의 문자와 이메일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함(member check)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결과에 대한 연구자 간 다각적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정기 연구모임에서 동

료검증을 받았으며 상담심리학 교수와 질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2명의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밟으면서 특정개념에 대해 공명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해석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었고, 범주들 간 변별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부모화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는 20대 미혼여성 2명에게 연구결과를 점검받는 과정(peer debriefing)을 밟았다.

결 과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의 주제들

본 연구는 부모화된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 이들의 생활세계 속에 담긴 주제는 ‘울타리 없는 삶’, ‘나’로서 살지 못함,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견뎌온 삶의 회한’, ‘친함과 편함 없는 만남’이다. 부모화된 20대 미혼여성의 삶에서 발견된 체험의 본질은 ‘부모가 있어도 고아 같은 삶의 부정성과 주체적 삶의 긍정성의 불균형적 공존’이다.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자기희생적인 면이 많았으며, 여기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버거움을 감수해왔다. 여기에 대해 참여자들은 ‘테두리나 울타리가 없는 느낌’, ‘소녀가장이나 고아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모가 있어도 고아 같은 삶’이라는 주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 속에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마련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원하는 바를 지향하는 주도성이 살아있다. 이러한 주도성에 의해 균형을 잡는 교차지점이 이들의 삶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는 ‘버거움과 외로움이라는 부정성과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긍정성이 불균형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출된 5개의 주제와 25개의 하위주제는 표 2와 같다.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과 의미를 주제 및 하위주제별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주제 1. 울타리 없는 삶

애쓰는 수고를 모름

‘아 내가 진짜 이래야 되나’ 어느 정도 제가 하면 가족이 조금이라도 해주면 좀 할 맛이 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예 다 맡기는 듯한 느낌... ‘너는 빨래나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결혼하면 살림 잘 하겠다’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같아요.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집안일이나 대소사를 다 맡아서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과 공유할 수 없다. 소통하기 힘든 불편감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으로 놓여 있다.

부모의 기준에 삶이 휘둘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굉장히 완벽한 거를 요구하셨어요. 우유를 잘 못 땀는데 친구한테 엄마가 ‘너 우유 한번 따보라’고 개는 한 번에 바로 땀거든요. 그때 많이 혼났었어요. ‘너는 왜 못하냐고-, 재는

표 2. 결과의 주제별 범주

주 제	하 위 주 제
울타리 없는 삶	애쓰는 수고를 모름
	부모의 기준에 삶이 휘둘림
	보호가 필요할 때 방치됨
	마음 나누기 속 단절
	사랑보다 역할기대를 받음
‘나’로서 살지 못함	“집에 너 없으면 안돼!”
	상대방부터 생각하는 습관
	밖에서도 그들의 엄마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결국 그냥 해요.”
	“정작 제 일을 못해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가려진 본 모습
	“내가 어떤지 털어놓지 못하죠”
	안전할 때 아이모습이 나옴
	자기만의 공간에서 충전하기
견뎌온 삶의 회한	“결국 내가 다 해야 돼요”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부모의 헌신을 헤아림
	“저 나이 때는 저게 맞는데...”
친함과 편함 없는 만남	서로 다른 마음들의 공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트림
	같등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지 못해요”
	도움 받는 것도 불편함
	절대자도 부모 대할 때처럼 맞추게 됨

하는데’ 엄마가 시키면 한 번에 딱 해야
되요.... 이렇게 계속 살아서 뼈까지 이게
배어있으니까 잠깐 억울해도 넘어가요.
(참여자 2)

부모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춰야 되고 실망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전반적인 삶에서 구속
력 있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또래들과의
공유시간을 방해받거나 박탈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만족시킬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 버거웠음을 의미한다.

보호가 필요할 때 방치됨

엄마한테 ‘무섭다’ ‘두렵다’ 얘기를 잘 안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막 크게 불안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어떻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속수무책이었고 전쟁터의 태풍처럼 혹 왔다가 혹 가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따로 위로를 받는다거나 그랬던 게 아니다 보니까... (참여자 3)

부모의 불화는 갑자기 닥쳐오는 전쟁이나 태풍 같은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무섭고 외로운 자리에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했다. 부모와 함께 있어도 이방인이었고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마음 나누기 속 단절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도 너무 서운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도 엄마가 달래준 적 한번 없거든요. 그냥 방치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는 ‘아 엄마는 동생을 챙기느라 바쁜 사람’ 그렇게 단념을 하고 그 때부터 저는 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참여자 6)

대화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차단하는 부모의 반응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부모의 불화 속에 자식으로서 겪는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부모의 반응이 참여자들에게는 서운하고 안타까웠다. 결국 부모의 관심받기를

단념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보다 역할기대를 받음

첫째라는 타이틀로 엄마아빠가 많이 기대하셨고, 제가 10살이어도 동생이 완전 갓난 애기니까 집안일, 청소라든지, 그게 부모님한테 너무 당연하니까 저한테 사랑을 주기보다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고 그 또래에 비해서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잘 되어야 되는 자식’이어야 했고 부모의 맞벌이와 사별경험은 부모화를 촉진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가사를 분담하고 형제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떠맡았다. 이들은 자녀로서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받기보다 부모에게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주제 2. ‘나’로서 살지 못함

“집에 너 없으면 안돼!”

부모님이 잔걱정 하나하나 저한테 다 얘기하시는데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거 같아요. 두 분이 싸우시면 저한테 이야기 하거나 고3 동생 진로... 사건만 터지면 다 저한테 얘기 하거든요. 부모님은 더 참아주고 끌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기보다 제가 일부분을 담당하는 느낌이니깐... (참여자 7)

집안일이나 대소사, 의사결정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써왔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어른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가족의 정서적 기울기가 자신에게 쏠려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감당하면서 성장해왔다.

상대방부터 생각하는 습관

다 하나하나 신경쓰려고 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고, 아빠가 아무리 짜증나고 밉긴 한데 가부장 제도 안에서 자라오신 분이요 일을 못하게 되셨으니까 자존심도 상하실 거 같고... 엄마는 어떨 것 같고... 오빠도 이해하려고 엄청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이해이긴 한데... 제가 너무 타인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참여자 5)

주변 사람들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는 어렵다. 이들의 배려적인 행동방식은 가족 외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관계방식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밖에서도 그들의 엄마처럼

종종 엄마같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음식점 가더라도 자리를 일어섰는데 막 두고 간 거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뭔가 뒤에서, 제가 다 신경쓰려고 해요. 새로운 기수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기존 사람들과 못친해지거나 어려워하거나 안그랬으면 해서 그 사람들을 엄청 챙기고 한 번

이라도 말 걸려고 하고 신경 쓰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5)

가족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부모의 갈등상황에서 중재하던 역할들은 가족 외 다른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감지해서 주변 사람들의 보호자, 위로자, 문제해결사로 그들을 챙기고 살핀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결국 그냥 해요.”

클럽도 한 번도 안가보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가보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안가봤거든요. 책임감에만 억눌려서 살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해요. 설거지나 빨래나 엄마대신 동생들한테 뭘 하는 거나... 처음에 거절을 해도 마음이 쓰이니까 결국에는 하게 되거든요. 기대치에 맞게끔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참여자 2)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한다. 책임감에 눌려서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쓴다.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없고 자신이 유일한 문제해결사라는 인식 속에 불안의 연속상태로 살아왔다.

“정작 제 일을 못해요”

내가 이게 먼전가' 집에만 가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만약 아빠가 “우리 오늘은 냉면을 먹을까?” 이러면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여자 1)

엄마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사소한 고민까지 내가 안해도 되지 않았을까, 여동생이랑 그냥 동생 없는 셈치고 밀어내놓고 내 일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허탈한 거예요. (참여자 6)

가족의 요구에 대한 참여자1의 반응은 민감하고 자동적이다.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몸은 이미 움직이고 그 순간 자신의 일은 보류된다. 참여자들은 가족을 챙기는 것을 먼저 선택한다. 여기에 몰두된 만큼 자신의 일과는 차질을 빚는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

제가 본능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자리를 양보할 때나 뒤통을 빌려줬을 때나, 사소한 도움들- 학교생활 할 때나 부수적인 재료를 가져온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제가 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오히려 보상받는 느낌이랄까, 뿌듯하고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초등학교 때 준비물 안가져오는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빌렸었어요. 피해본다는 생각은 없고 남을 도와준다는 게 좀 당연한 거 같아요. (참여자 4)

‘잘 하는 아이’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정받을 때 참여자들은 존재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들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려진 본 모습

어른스럽고 하다보니까 그거에 부응하지 않으면 어린애 같은 모습이니까 좀 억눌러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가족 안에서 어른스럽다는 것에 가려진, 제 본 모습 같은 게 스스로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아 나는 효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효녀라고 하지’ 안그래도 그 틀에 맞춰서 살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등바등 사는 거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간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테두리를 쳐주는 느낌, 사실 벗어나고 싶은데,...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려고 한다. 이로 인해 완벽하게 하고 싶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까다로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숨긴다. 여기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지만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는 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어른스럽다’는 말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리광 부리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했고, ‘효녀’나 ‘딸’이 아닌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을 숨겨야 했다.

“내가 어떤지 털어놓지 못하죠”

남동생 아플 때 엄마모습으로 바라보는 제 모습... 엄마아빠 싸울 때 아무 것도 못하고 바라보는 모습.... 제가 거기서 떨어져서 ‘나는 저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

예요. 그 때 외로웠고 화나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계속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참여자 6)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는 무능감으로 경험된다. 가족애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남들에게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또한 크다. 부모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기억들 때문에 아픈 것도 아프다고 표현하기가 낯설다. 이해받거나 공감받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표현을 자제한다. 가족 안에서 겪는 갈등과 고충을 일상에서 티내지 않는다.

주제 3.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안전할 때 아이모습이 나옴

후배들이랑 선배들, 친구들이 놀리면 제가 되게 재미있는 친구래요. 그렇게 반응 같은 것도 심하고 제가 말을 하면 남들이 웃어줬어요. 재미있어 했어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흥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나 기사면 열변을 토한다고 그럴까,... (참여자 1)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해줄 누군가가 있을 때 욕구를 드러내고 감정을 탐색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대상이 없다면 그 욕구와 감정은 억압된다(Miller, 2002). 참여자 1은 자신의 관심사가 나오거나 주변의 호응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마음들이 터져 나온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충전하기

내향적인 성격이라 집에서 혼자 잘 놀고 영화 볼 수 있고 혼자 노래방도 가고 거의 집에서 놀거나 책도 읽고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고, 집에 암막커튼 쳐 놓고,.. 집에서 이러는 게 외롭다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참여자 3)

혼자 카페 가서 앉아있거나 버스 타고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거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쇼핑한다거나 한강 가서 혼자 자전거도 타보고,...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을까’... 내릴 때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구나, (참여자 4)

참여자들은 혼자놀이 시간을 구별해놓고 그 시간을 즐긴다. 자신의 동굴로 숨어들어 일상의 압박으로부터 놓여나고 고조상태가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그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정돈하면서 일상 속 자기자리로 복귀한다.

“결국 내가 다 해야 돼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보고 안되면 혼자 끄꿍 앓고... 엄마아빠하고 솔직히 대학 올 때도 의논하지 않았거든요. 엄마아빠가 진짜 신경 안써도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나 혼자 해도 잘 할 수 있어’ (참여자 1)

이들은 삶의 큰 틀로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향한 양선(良善)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의 다른 틀에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 ‘나의 일’에 집중한다. 또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하며,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인 기준이 있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자발적인 추구를 유지하고 있다.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자기 기대치도 있고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고 성과라든가 불만족스럽거나 불완전한 상태를 못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발표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참여자 7)

참여자들에게는 생산적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자신에게 주어 진 일이나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대치에 도달하고자 한다.

주제 4. 견디은 삶의 회한

부모의 헌신을 헤아림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좀 많이 아니까 계속 도와주고 싶은 거 같아요. 힘들게 일하시는 거 티를 안내시는데 보면 알 거 같아요. 파스 붙이고 이런 거 보며는 조금 그런 생각 들어요. (참여자 1)

재수 때 매일 데려다 주시고,... 매일 밤새고 뒤척이다가 아빠가 출근하시려고 씻고 준비하고 나가시는 소리를 자는 척 하며 들었는데, 남들 안하는 공부 시켜놨음에도 이렇게 한심하게 있는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엄청 울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여자 2)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헤아리면서 참여자들은 그 고충을 분담하고 공유하려고 애를 쓴다. 이들은 부모가 감당해준 헌신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즐거움보다 부모의 기쁨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손자손녀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하는 조부모의 지극정성을 참여자6은 고마움과 측은함으로 헤아리고 있다.

“저 나이 때는 저게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우선에 두고 했더라면 지금 다르지 않을까... 방학 때 영어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때 했었더라면-,... 그때는 동생들 보살피는 게 부모님한테 더 만족스러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친구들처럼 스펙을 쌓거나 취업을 했거나,... 대학원에 와서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했더라면 ~..... (참여자 2)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배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여자들에게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혹사시켰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삶에 대한 선택권이 다시 주어 진다면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싶은 마음을 참여자들은 만나고 있다.

서로 다른 마음들의 공존

언니역할을 하는 언니가 있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보살펴주고 싶고,.. 언니가 언니다운 행복한 모습을 원했는데 아니다 보니까 -,.... 제가 너무 애기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 같기도 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충돌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참여자들에게는 가족관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과 의존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의식은 다른 곳을 향해있는 고립감이 있고,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트림

생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부모님도 착하게 말 잘 듣던 딸이 가출하고 학교 안나가고 이러니까 당황하시고 ‘더 이상 품안의 자식 아니구나’ 저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거 같아요. (참여자 7)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그 동안 내색하지 않았던 일상의 버거움을 분출한다. 여기에 대해 울분과 함께 자책감도 느꼈다고 한다. ‘참아야 되는 첫째’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경계를 유지하고 성장해오다가 자발성을 배제당하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보호막을 청소년기에 이들 스스로 뜯어낸다.

**주제 5. 친함과 편함 없는 만남
갈등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장녀다 보니까 부모님의 관계회복을 위해 사이에서 제가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었고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생이 그런 안좋은 것들을 안보고 자랄 수 있을까’ 중재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동생이랑 엄마의 관계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사랑한다, 가족끼리 표현 많이 하자’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참여자 4)

부모의 불화와 친구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참여자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무력해지는 희생양이 될 때도 있다. 이성관계에서도 부모의 기준을 의식하면서 부모를 개입시키는 미분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지 못해요”

친구들을 깊게 사귀고 많이 안사귀는 편이라 미안한 부분도 있고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스스로 겁나는 것도 있어요. 얘기할 사람이 오빠 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헤어지고 나면,.. 대인관계가 넓게 사귀는 편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거의 의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관계대상들은 이들에게 ‘완전한 내 편’ 혹은 ‘손꼽는 대상’으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다.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해내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관계상황에서의 친근한 교류나 소통경험이 제한적이다.

도움 받는 것도 불편함

학원 담임 선생님이 왔다갔다하는 시간 아까우니까 독서실을 끊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맞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못하게 하니 화나고,.. 저 혼자 한다고 해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참여자 6)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의 부재는 관계대상과 환경에 대해서 위협요소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관계방식을 형성하게 한다(Bowlby, 2009). 대인관계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불편감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체계 안에서 안정적인 애착과 경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의 도움과 관여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그 수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절대자도 부모 대할 때처럼 맞추게 됨

부모님이 너무 엄하시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엄한 분이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를 평가하거나 맨날 태스크(일)를 주는 존재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느낌과 뭔가 잘못하면 정말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이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 맥락은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절대자와의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절대자를 편안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불확신과 의심심을 느끼면서 방관자, 평가자, 감시자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절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의 체험적 관계, 체험적 시간, 체험적 공간, 체험적 신체

생활세계에서 체험되는 내용들 속에는 네 가지 실존체(existentials)로서 체험적 관계, 체험적 시간, 체험적 공간, 체험적 신체가 있다(van Manen, 1994). 참여자들의 삶의 장면들 또한 관계, 시간, 공간, 신체라는 틀의 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적 관계 속에서 참여자들은 ‘만남 속 거리두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배려하거나 책임을 감당하는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결속력이나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기보다 역할을 수행하거나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세계의 체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시간을 통제하고 제약을 두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시간 밖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들의 체험적 시간은 삶을 버텨온 버거움과 자신으로서 살지 못한 비애감의 궤적을 살피면서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그 때 비로소 인식되는 회고적 시간이다.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막상 뭘 할 게 없는 거 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런 생각

계속 많이 하는데 아침에 눈뜨고 활동하다 보면 그 생각이 다 없어지고 또 그런 생각 들고 (참여자 1)

적성을 더 봤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 삶보다는 제 삶이니까 저를 더 중요하게 봤을 거 같아요. 그 때로 돌아간다면, (참여자 4)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안되는 것들, 모든 상황을 책임을 지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갑작스럽거나 통제가 안되는 상태 자체를 스트레스 받고 (참여자 7)

체험적 공간 속에는 참여자들이 삶의 흐름 속에 있다가 스스로 물러나서 자신이 있던 삶의 영역을 바라보는 지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직 자신을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한다.

혼자 카페에서 책보고 밖에 사람들 구경하고 나오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바빠 지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빨리 그 속에 들어가야겠다’저는 뭔가 다른 길에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1)

혼자 있는 게 그냥 좋아요. 혼자 쇼핑을 한다거나 한강 가서 혼자 자전거도 타보고, 다리를 건너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는 거 같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밖에 사람들 살아가는 거-,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을까’ 구경도 하면서 ‘나는 왜 지금...’ 내릴 때는 다시 내 삶

으로 돌아왔구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거 같아요. (참여자 4)

제가 동굴형이거든요. 친구도 잘 안만났거든요. 힘들면 혼자 있어요. 숨어요. 교회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좀 자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선 멈춰야 되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요. (참여자 7)

참여자 2와 5의 이야기는 신체를 통해서 체험되는 고통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아픈 상태를 일단 견딘다. 현상학자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신체에 대해서, 살아있는 몸을 사유의 대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사유의 주체로서만이 아닌 세계를 향해 몸을 수행해가는 움직임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몸틀(les schema corpore)’이라는 개념을 주창하였다. 몸을 수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있는 몸으로서 삶이 함께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광제, 2012). 참여자 2와 5의 체험적 신체는 사유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삶을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상황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수행을 위해 발휘되는 도구적 측면이 강하다.

하루에 2시간 자고 2주간을 버티다가 배가 심하게 아팠어요. 그 상황에서도 조찬회의 진행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지시사항 다 받아 적고, 아프다는 말 못하고 하루 종일 앓았어요... 아픈 외중에도 발표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참여자 2)

알바 했다가, 올해 초에 또 그게 걸렸
었거든요. 딱 아픈 순간 폐렴 같긴 했었
어요. ‘또 폐렴인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응급실까진 안가고 그냥 좀 버티다가
다음날 병원을 갔었거든요.. (참여자 5)

부모화된 삶의 해석적 의미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 속에는 부모가 있
어도 고아 같은 삶이라는 부정성과 주체적 삶
이라는 긍정성이 불균형적으로 공존하고 있었
다. 여기에는 ‘울타리 없는 삶’, ‘나로서 살지
못함’,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견뎌온 삶
의 회한’, ‘친함과 편함 없는 만남’이라는 주
제들이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선 참여자들은 울타리가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 이들이 경험한 ‘울타리 없는 삶’ 속에는
양육자의 심리적 부재가 가지고 온 외로움
과 버거움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애씀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당연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졌다. 역할수행을 통한 접촉은
지속되고 있지만 속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
류는 차단됨으로써 참여자들은 정서적 단절감
을 느끼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
의 정서나 욕구를 드러내기보다 억제하면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본래의 자율성이
나 명랑성과 창의적 에너지를 응축시키면서
부모의 기준과 요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불화나 갈등상황에서 보
호자였고 중재자였기에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
는 드러낼 수 없었다. 휘몰아치는 전쟁과 태
풍을 담아내야 하는 자리이면서 자신을 지키
기 위해 파편을 삼키면서도 버텨야 되는 시간

이었다. 부모의 취약한 조건들은 이들에게 부
모의 고통을 보듬고 품게 했다. 몇몇 참여
자들은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무력감과
무심함을 타하기보다 부모의 관심을 끌지 못
하는 자신을 타하면서 내면의 부모상(parent
image)을 지켜왔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스스
로 알아서 잘 하는 착한 만이’이고 ‘믿음직한
첫째’로서 어린 시절부터 보호를 받기보다 부
모의 의지처가 되고 의사결정상황에 참여하면
서 어른대접을 받아왔다. 이들은 부모의 부담
을 덜어줘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감을 느끼면
서 ‘잘 되어야 하는 자식’이어야 했다. 자녀로
서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부모로부터 받기보
다 부모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면서 가족에게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들의 존재방
식이었다.

참여자들은 ‘나로서 살지 못함’에서 비롯된
아쉬움이 있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 또한
막연하고 두려워서 이 마음을 숨기려고 한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섭섭함을 밖으
로 내놓지 못한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나 상대방이 거절당하는 입장에
놓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려
적 행동방식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들의 배려적 행동방식은 상대방의 욕구를 우
선시하면서 ‘엄마’처럼 챙겨주는 단계로 확장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
도 결국 그냥 한다고 했다.

누군가의 필요가 감지되면 몸이 먼저 반응
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챙김은 이들에게 각인
되어 있다.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만큼 자신
의 일상엔 차질이 생기고 지금-여기에서의 현
재성은 배제되고 상실된다. 이들은 주변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유
능감을 발휘하면서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

구가 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기 보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어야 했다. 효녀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속마음이 이 틀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고 억누르는 존재방식에 의해 가려져 있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삶의 옹어리를 드러내는 것은 낫설기만 하다. ‘착한 아이’로서의 자기인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하다.

참여자들은 역할수행을 통해 관계 상황에서 존재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로서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안전이 확보될 때 어린 아이 같은 본연의 명랑성을 드러내면서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신과 만나게 한다. 이 과정은 혼자놀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상의 고조상태를 정돈하고 충전하는 의식이며 참여자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준다. 참여자 1은 집안일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안전한 주체적 권위를 발휘한다. 생활세계는 그녀의 시선이 움직이고 여기에 따라 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민첩하게 완성되는 다양한 일들로 구성된다. 그녀가 체험하는 공간은 통제 속에 질서가 부여되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창조의 세계이다.

또한 이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부모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견뎌온 삶의 회한’으로 교차되고 있다. 개인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참여자 3과 7의 경우 가족을 위한 돌봄을 유지하면서도 심리적 철수상태를 반복하는 분리-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와 달리 참여자 1, 2, 4, 5, 6에게는 ‘효’라는 가족가치의 맥락에서 부모의 자리를 구별하는 엄연한 인식이 있다. 이들은 ‘파스한 장에 하루치 버거움을 담아내는 부모의 견

담’, ‘부모의 새벽 출근길 의뢰에서 발견한 삶을 버텨야 하는 이유’,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의식 너머에서 만나는 아버지의 그림자’, ‘부모의 유일한 언어가 수치의 대상이 되는 가혹한 현실이라는 벽 넘기’ ‘조부모의 인색함 속에 깃든 손자손녀에 대한 속 깊은 배려’로 부모의 자리를 자신의 내면에 띄우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고충을 분담하면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제한해왔는데 여기에 대해 스스로를 혹사시켰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크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

참여자들은 가족관계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2차 감정(“이해가 되면서도 이해되는 것이 화가 나요”, 참여자 5)이나 감정에 대한 감정(“긴장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 게 무서워요.”, 참여자 1)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서와 욕구는 억제되고 내면에서 갈등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기 관찰적 몰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나 역할을 철저히 완수한다. 이로 인해서 이들이 생활전반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피로감은 소진에 이를 만큼 상당하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청소년기에 분출된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위계를 침범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자율성 획득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처벌적 징계보다 자기 허용적 주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긍정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선은 응급실을 향하고 있지만 끊어질

듯한 장(腸)을 보듬으면서 몸이 기억하는 것은 참여자 2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다.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참여자 2의 책임감도 함께 달렸다. ‘모든 것의 제대로’를 위해 몸체는 붓다 못해 앓아져버린 장(腸)을 품고 몸틀을 지켰다. 이것은 이상적 동경이 아닌 현실로 구현된 구체적 이상이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삶’과 ‘스스로의 삶’을 보듬고 부딪히며 회한 속에 살아내고 있었다.

관계에 대한 인식 면에서 참여자들은 ‘친함과 편함 없는 만남’ 속에 있었다. 친밀한 교류에 대한 기대보다 불공평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먼저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안정적 애착관계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화된 역할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참여자들은 역할이라는 장치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돌보는 행동으로 관계방식을 구축해왔다.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모험이다. 상황을 체감하고 상대방의 기색과 기분을 살피면서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궤적이 확인될 때 비로소 자신을 펴보인다. 이들에게 ‘역할을 한다는 것’과 ‘돕는다는 것’은 그 궤적을 따라 존재를 확인하면서 생활세계로 들어가는 출구이다. 이와 같이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의 부재는 외부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관계방식을 형성하게 한다(Bowlby, 2009).

몇몇 참여자들은 신앙적 영역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방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방관자, 평가자, 감시자의 이미지로 절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참여자 5는 존재에 대한 본질적 회의와 삶에 대한 회한을 절대자를 향해 드러냈다. 참여자 2는 절대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르고 착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

고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7 또한 절대자에 대해 해야 할 일(task)을 부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방적 힘의 존재로 인식해왔다. 이들은 부모의 기준뿐만 아니라 절대자의 기준에도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상적 가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부모화된 20대 미혼 여성의 삶 속에는 부정성과 긍정성이 공존하고 있는데, 부모가 있어도 고아 같은 삶이라는 고립감과 주체적 삶이라는 주도성이 불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속에서 부모의 심리적 부재로 인한 ‘울타리 없는 삶’, 타인을 우선시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나로서 살지 못함’, 주도성을 발휘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내적 갈등상태에 놓여있는 ‘건너온 삶의 회한’, 관계상황에서 경험하는 불편감으로 인한 ‘친함과 편함 없는 만남’이라는 주제들이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화된 미혼여성들의 삶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고아 같은 삶’이라는 부정성과 ‘주체적 삶’이라는 긍정성이 불균형적으로 공존하는 삶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의 병리성 이면의 회복력에 대해 조명한 연구들(Hooper et al. 2008; Nuttall, 201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부모화의 병리성과 적응성은 혼재되어 있으며 부모화된 삶 이면의 긍정적 동기나 유능감은 적응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과도 유사한 현상

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과도한 역할과 기능 수행은 이들로 하여금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과를 내고 주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발달된 순기능적이고 적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역할과 기능수행의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과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배려행동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화된 미혼여성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들과 과도한 역할수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관계 양상이 어떻게 순기능적 또는 역기능적으로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의 부모는 자녀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보다 자신의 욕구와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부갈등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녀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양육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부모의 불안정하고 무력한 모습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서적 교류의 부재를 경험하게 했고, 부모로부터 사랑보다 역할기대를 받는 관계방식을 지속하게 했다. 그 결과 부모가 무력하고 허용적일 때는 통제양상으로 접촉하고, 부모가 통제적일 때는 돌봄양상으로 접촉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통제양상은 가족의 일과를 챙기고 위계를 바로 잡으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돌봄양상은 안마하기, 지지와 격려, 위로하기 등 친밀한 관계방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유약성으로 인해 가족체계가 불안정할 때 자녀가 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통제자 역할을 하고, 통

제적 부모의 몰이해와 무심함으로 인해서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이 위협당할 때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위해 자녀가 위로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oszormenyi-Nagy, & Spark, 2013; Minuchin, 1988).

실제로 참여자 1, 5, 6은 부모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을 내재화하여 부모의 해결사, 보호자, 통제자 역할을 주로 해왔고, 일상에서도 통제욕구를 발휘하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다. 반면, 참여자 2, 3, 4, 7의 경우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속에서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부모의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역할을 주로 해왔고, 대인관계에서도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핍된 자신의 욕구를 부모에게 투사(projection)하여, 부모 또한 자신과 같은 결핍감을 느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을 충족시켜주려고 함으로써 이들의 삶에서 부모화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참여자들은 ‘나로서의 나’가 아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무엇’으로 살고 있었다.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과 상황의 요구와 필요를 우선시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것들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낸다. 자신의 일에 지장이 생기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들은 ‘잘 하는 아이’, ‘쓸모 있는 아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발달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성숙한 행동방식과 생활태도를 보이므로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통합된 정체성 확립이 지연되어 있다. 이는 Jurkovic(199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부모화 자체가 정체감과 자기존중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데 부모화에 의해 형성된 정체감과 자기존중감이 가족의 욕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부터 미분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친밀한 정서적 교류나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화의 병리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참여자들에게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로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자기인식이 있다. 이들의 행동동기의 기저에는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가족 구성원의 장애나 신체적, 심리적 질환으로 인한 부모의 고충이 깔려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로서의 자기인식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성취감과 존재감을 경험하게 했다. 이러한 긍정적 보상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했다. 이로 인한 외로움과 버거움은 혼자놀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만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 선행연구(Kuperminc, Wilkins, Jurkovic, & Perilla, 20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적응적인 유능감을 통해 높은 성취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강박적 배려행동으로 자기효능감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 삶의 장면에서 이 부분은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향한 자발적 양선(良善)의 태도로 실행된다. 이들은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해 상황이나 대상을 통제하기도 하고 타인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특히 정서적 부모화를 통한 공감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주체성은 접근성을 높이면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은 가족주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상태를 경험해왔고, 부모의 삶에 자신을 투영하면서 자책하거나 자신의 삶에 부모를 투영하면서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아실현 욕구에 따라서 참여자 1, 2, 4, 6과 참여자 3, 5, 7의 효 행동

에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 3, 5, 7은 가족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부모를 돌보는 효 행동을 해왔는데, 이들의 지향점은 분화된 인격체로서의 자아실현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효 행동은 체계의 안정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참여자 1, 2, 4, 6은 전통적 가족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녀로서 부모의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이 있고 이러한 가치가 삶의 근간이 되어 있다. 이들에게 부모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행동지침이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에서 경험해온 갈등상태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연락두절, 반항적 행동, 가출, 등교거부, 욕설, 말대꾸와 항변 등의 능동적 양상과 신체화, 회피, 철수 등의 수동적 양상으로 분출되었다. 이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참여자들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처벌적 징계보다 자기 허용적 주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관계상황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였다. 또래들과의 정서적 교류나 친밀감 형성보다 역할수행이나 책임감이 이들에게 더 비중 있게 전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관계성의 안전감은 있지만 친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Jurkovic, 1997; Miller, 2002; West & Keller, 1991; Zeanah & Klitzke, 1991)과 일치한다. 몇몇 참여자들은 배려행동을 제공하면서 통제욕구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부모화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문정덕, 2006; Jurkovic, 1997). 어떤 참여자는 통제적인 부모와의 관계 방식을 이성교제에서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Fulliwider-Bush와 Jacobvitz(1993)의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모화로 인해 낮은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기보다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하는 수동적 행동방식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처해왔다. 부모화된 사람들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는데(조은영, 2004), 이런 양상은 가족 외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반복되었고 갈등의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몇몇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방식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이미지가 절대자에 대한 이미지의 기초가 된다는 St. Clair(1998)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절대자와의 관계에서도 존재 자체로서의 수용에 대한 확신보다는 당위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속박을 경험하고 있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부모화된 사람들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화된 사람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진로결정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모화의 역동적 양상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데(Jurkovic, 1997), 부모화된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삶의 모습과 의미를 찾아본다면 부모화된 삶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발달적 주제로서 정체성이나 여성성과 뒤늦게 사춘기를 겪는 과정에 대해 자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루면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해보는 학문적 개입 또한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

화는 부모의 행동양식 속에서 발견되고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Louise & Delia, 2002)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임상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치료나 개인치료 등의 개입을 통한 부모의 원가족 관계의 역동적 맥락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선모 (2012).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선모 (2015). 부모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65-283.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광극주 (2010). 흔들리는 20대: 청년기 생애설계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보람, 최수미 (2016).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97-914.
 김지인 (2014).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 비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 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덕 (2006).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민 (2005).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과주: 교육과학사.
-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직업교육연구*, 30(2), 35-49.
- 서덕희 (2014). 질적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실습, 질적연구 논문작성을 위한 워크샵 시리즈 자료집. 10월24-25일. 서울: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8).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수지 (2014). 성인 초기 미혼 여성의 심리적 부모화와 이성관계 만족도: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4(3), 421-436.
- 이남인 (2004). 초월론적 현상학과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혜경 (2006). 자녀의 부모화 및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원 (2018).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적 탐구. *질적탐구*, 4(1), 1-30.
- 정옥분 (2015).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광제 (2012).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서울: 이학사.
- 조은영 (2004). 부모화 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이정 (2015). 대학생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 내현적 자기애, 진로 미결정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 (2012). 부모화 경험을 한 목회자 자녀의 대인관계 특성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선, 강지희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43-53.
- 함광성, 신태섭 (2015). 중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2(10), 159-185.
- Barnett, B., & Parker, G. (1998). The parentified child: Early competence or childhood deprivation?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Review*, 3, 146-155.
- Boszormenyi-Nazy, I., & Spark, G. M. (2013). *Invisible loyalties*. New York: Routledge.
- Boszormenyi-Nazy, I., & Krasner, B. R. (2014). *Between give and take: A clinical guide to contextual therapy*. New York: Routledge.
- Bowlby, J. (2009). 애착: 인간애착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Attachment and loss 05] (김창대 역). 과주: 나남출판사. (원전은 2000년에 출판)
- Bowlby, J. (2014). 존 볼비의 안전기지: 애착이론의 임상적 적용 [A secure base by John Bowlby] (김수임, 강예리, 강민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Byng-Hall, J. (2008). The significance of children fulfilling parental role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147-162.
- Chase, N. D. (1999). Assessing childhood parentification: Guidelines for researchers and clinicians. In N. D. Chase(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pp.92-113). CA: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2판)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2nd ed.)*]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년에 출판)
- Denzin, N. K., & Lincoln, Y. S. (2000).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 87-103.
- Giles, S. (2014). *The impact of parentification on depression moderated by self-care: A multiple group analysis by gender for South Korea and the 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gham Young.
- Goglia, L. R., Jurkovic, G. J., Burt, A. M., & Burge-Callaway, K. G. (1992). Generational boundary distortions by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hild-as-parent and child-as-mat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91-299.
- Hooper, L. M. (2007).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and family systems theory to the phenomena of parentification.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y*, 15(3), 217-223.
- Hooper, L. M., Marotta, S. A., & Lanthier, R. P. (2008). Predictors of growth and distress following childhood parentification: A retrospective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5), 693-705.
- Jeremy, H. (2007). 존 볼비와 애착이론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 Casey, S. (2000). *Parentification in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presentation in G. P. Kuperminc (Chair), proyecto juventud: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applied anthropology, San Francisco, CA.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Kuperminc, G. P., Wilkins, N. J., Jurkovic, G. J., & Perilla, J. L. (2013). Filial responsibility, perceived fairnes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Latino youth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2), 173-182.
- Levine, A. (2009). *Parentification and adult psychosocial life di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eshiva.
- Louise, E., & Delia, C. (2002). The parentified

- child. *Clinical child psychology*, 7(2), 163-178.
- Mayseless, O., Bartholomew, K., Henderson, A., & Trinke, S. (2004). "I was more her mom than she was mine": Role reversal in a community sample. *Family Relations*, 53(1), 78-86.
- McCabe-Stroman, C. (2015). *Our history: Stories of chronically disciplined minor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cMahon, T. J., &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67-281.
- Miller, A. (2002). 천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 참가기를 찾아서 [(*The Drama of the gifted child: The search for the true self*)] (권혜경 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원전은 1979년에 출판)
- Minuchin, S. (1988). 가족과 가족치료 [*Families & family therapy*] (이명홍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전은 1974년에 출판)
- Nuttall, A. K. (2015). *Identifying patterns of adaptive and destructive parentification in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 Robinson, B. E. (1999). Workaholic children: One method of fulfilling the parentification Role. In N.D. Chase (Eds.), *Burdened Children* (pp. 56-74). New York: Guilford.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 [*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0)
- St. Clair, M. (1998). 인간의 관계경험과 하나님 경험-대상관계 이론과 종교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94년에 출판)
-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 안규남 역). 서울: 동녘.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van Manen, M. (2014).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en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 van Manen, M., Higgins, I., & van der Riet, P. (2016). A conversation with max van Manen on phenomenology in its original sense: Editorial. *Nursing & Health Sciences*, 18(1), 4-7.
- West, M. L., & Keller, A. E. (1991). Parentification of the child: A case study of Bowlby's compulsive care-giving attachment patter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3), 425-431.
- Zeanah, C. H., & Klitzke, M. (1991). Role reversal and the self-effacing solution: Observations from infant-parent psychotherapy. *Psychiatry*, 54, 346-357.

원 고 접 수 일 : 2018. 11.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4. 01

게재결정일 : 2019. 08. 13

A Phenomenological Study of Unmarried Women's Parentified Life in her 20s

Mi-Jeong Seok

Seung-Min Park

Soongsil University

Parentification is a concept referring to the role reversal in which a child acts as a parent's guardian. In this study, the Van Manen's (1994)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was applied to the parentified life of unmarried women in their 20s. Seven single women in their 20s were selected through the use of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PQ) and then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Five major themes and 25 sub-them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One negative aspect of the unmarried women's parentified life in her 20s was feeling like an orphan, while a positive aspect was living one's life on her own independently. The five major themes characterizing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included: "life without a protector," "I can't live as me," "characteristics of self-governing," "regrets in life," and "meeting without closeness and comfort." The academic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fication, unmarried women's parentified life in her 20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